

# ‘주 69시간’ 반발 여론에 후퇴...노동시간 50시간대로 정리

### 윤 대통령 “60시간 이상은 무리” 대통령실·노동부 엇박자 논란도

일주일 최대 근로 허용 시간이 ‘50시간대’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현재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인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에는 포함된 69시간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실이 급히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껍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도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폭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방안은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다시 말해 ‘주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노동부는 일하는 전체 시간이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년 근로자들은 69시간이라는 수치에 주목했다. ‘주 52시간제’의 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제’가 사실상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 8일 만인 지난 14일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날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준 셈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놓을 보완책에 담긴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보다 조금 많은 50시간 중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사태를 두고 노동부와 대통령실 사이 엇박

자가 발생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69시간 논란은 노동부가 지난 6일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 훨씬 전 이미 노동계를 뜨겁게 달궜다.

정부에 권고할 노동 개혁 과제를 연구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작년 11월 언론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면서 “산술적으로는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69시간은 일주일에 6일 일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나온 수치로, 노동계는 7일 일할 경우 실제 최대 근로시간은 80.5시간에 달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노동부가 약 4개월 만인 지난 6일 발표한 개편 방안의 핵심이 ‘69시간’은 아니었다. 다만, ‘특정 주에 많이 일하면 다른 주는 더 일할 수 없는 구조다.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강조하기는 했다.

대통령실은 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논란의 ‘주 최대 69시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대통령 질타를 받아들여 보완 대책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주 최대 69시간 상한을 50시간대로 대폭 낮춘다면 지금 제도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지적이 또 나올 수 있다.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주장해온 재계 쪽에서는 당장 노동계가 이번 개편안을 왜곡 해석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69시간이라는 숫자만 낮출 게 아니라 ‘근로시간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편안 자체를 폐기하라고 버리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전날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관계자들,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간담회를 한 이어 이날 오후에는 노동부 청년보좌역 등 20명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과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 노동 약자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은 뒤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한일관계 평화·번영 향한 미래의 문 열었다”

### 과거사 사죄 등 日 호응 기대 조선 의원 30여명 일본 방문 일 의원들과 의회 외교 추진

국민의힘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맞선 안보협력 강화 등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멀게만 느껴졌던 한·일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미래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라며 “오직 정치적 선택으로 역사문제를 오남용하는 민주당은 미래에 대해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밝혔다.

김미에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12만 명의 단독 정상회담을 위한 방일이 지난 문재인 정권이 조장·방치한 최악의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희망이 썩어 틀 수 있도록 흠뻑이 국론을 모아내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

다”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영화에서 외계인이 침공하면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도 지구 연합군을 구성한다”며 “북한의 위협이 날이 심각해지는 이때 한미일 협력과 공조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해 일본 측의 사죄 표명 등 호응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제 일본 정부와 기업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승적 결단에 호응해서 피해자를 위로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이름의 잔에 절반의 물이 채워졌다. 나머지를 채우는 것은 일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 동원, 인권침해 문제에서도 사죄하고 강제징용 재단의 기금, 모금에 응한다든지, 미래 청년 기금에 (참여)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사죄, 얘기를 꼭 윤 대통령에게 언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할 수 있다면 그 당시 식민시대에 강제징용 노동을 이용했던 일

본의 기업들도 그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위로하는 의사 표현이 있었으면 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영호 최고위원은 “우리는 전승국, 일본은 전패국의 위치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외교에서 상대에게 무엇을 주고 대신 무엇을 받을 것이냐는 식의 접근은 너무 쪼잔하다”며 “일본이 우리의 제안에 호응하는 호응하지 않든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선 의원 30여명은 조만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의회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단 방일을 주도하는 박성민 의원은 통화에서 “오랫동안 중단돼 있던 한일 의회 외교를 복구하고 관계 개선을 하자는 취지”라면서 “모두 의원 자비로, 의무성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 P 하락 35%

### NBS...강제동원 해법 60% 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사트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6%p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가 43%로 가장 많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가 20%로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 중에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라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24%)라는 응답이 두 번

째로 많았다.

‘제3차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33%, ‘반대한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났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 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40%, 반대한다는 응답이 54%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조사보다 5%p 내렸고, 더불어민주당은 3%p 오른 30%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5%, ‘지지 정당 없음’은 29%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승수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승수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